

경북

지역주의 타령 그만하자

설인수 | 민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관심이 없기에 목표도 없는 지역, 경북

스포츠 대회에서 참가에 의의를 두거나, 무모한 도전은 종종 세상의 관심을 받는다. 열대의 나라 자메이카의 봅슬레이 선수들이 동계올림픽에 출전한다는 내용의 영화 '쿨러닝'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 19대 총선에서 경북에 출마한 민주당 등 야권후보자들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들의 무모한 도전이 세상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19대 총선에서 경북은 여야 모두 세상의 관심을 받을 수 없는 정치지형을 가지고 있다. 여권에게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고, 야권에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대로다. 새누리당이 15개 지역구를 싹쓸이했고, 경북 김천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철우 후보는 전국 최고 득표율(83.45%)로 당선됐다. 반면 15개 모든 지역구에 출마한 야권의 후보자 중 선거비용 100% 보전 기준 득표율 15%에도 못 미친 후보자가 9명이나 된다. 이 중 4명은 10% 득표율에도 못 미쳤다.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으로 혁신 없는 통합과 공천, 정권심판에만 의존한 선거전략, 김용민 후보 막말사태에 대한 미온적 태도 등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의 총선 결과를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야권은 경북을 절대 약세 지역으로 분류만 해놓고 이번 총선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목표가 없었기에 경북의 총선결과에 대해 논할 수도 없다. 단지 지역주의의 높은 벽만 실감했다는 말만 수십 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여야의 19대 총선 과정 및 과거 선거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경북의 정치지형을 되돌아보도록 한다. 또한 민주정부 당시 추진했던 ‘동진정책’과 총선에 출마한 일부 후보자들의 선거 과정을 통해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이 설정해야 할 목표와 과제들에 대해 점검하도록 한다.

2. 문재인, 김부겸 효과에 따른 기대감 하지만 여전히 인물난

19대 총선에서 야권은 경북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세웠다. 야권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구미(갑)을 포함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에서 각각 11명, 5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각각 4인, 2인, 1인의 후보자가 출마한 18대 총선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이다. 야권의 승리로 평가되는 2010년 5대 지방선거의 경우 경북 2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는 허대만 포항시장 후보가 유일하다.

선거 때마다 인물난을 겪던 경북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세울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최근 10년간 선거결과에서 경북의 정치지형이 변화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17대 총선 당시 정당 비례투표에서 기록한 득표율을 제외하고, 역대선거에서 범야권의 정당지지도가 30%를 넘어선 적이 없다. 18대 총선 이후 5대 지방선거에서 다소 호전되었으나,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19대 총선까지 75%대를 유지하고 있다.

[표 1] 역대선거 경북 지역 정당지지도 변화

구분	범여권			범야권				
	16대 대선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계	
	73.46			21.65	4.34	25.99		
17대 총선 비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노당	34.95		
	58.34			22.95	12.00			
4대 지선 광역비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노당	21.74		
	74.86			12.89	8.85			
17대 대선	이명박	이회창		86.30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12.87
	72.58	13.72			6.79	2.76	3.32	
18대 총선 비례	한나라당	친박	자유선진	79.90	민주당	민노당	창조+진보	13.80
	53.45	23.56	2.89		5.61	4.09	4.10	
5대 지선 광역비례	한나라당		친박+미래	73.83	민주당	민노당	국참+진보	25.63
	61.68		12.15		11.22	5.86	8.55	
19대 총선 비례	새누리당		자유선진 등	75.93	민주당	통합진보당		19.64
	69.02		6.91		13.42	6.22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2012년 신년 여론조사 결과 경북 지역의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이 45.2%, 민주당이 19.7%였고, 인터넷 언론 민중의 소리가 발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이 56.7%, 야권연대가 27.9%였다. 조사 시점이 한나라당 내 위기가 최고조에 도달했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도 경북 지역의 야권 지지도는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야권이 모든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세울 수 있었던 배경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경북 외부의 정치 지형 변화에서 찾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부겸 의원의 최고위원 선출과 대구 출마 결정, 총선 이전부터 가시화된 낙동강벨트와 문재인 대망론, 한나라당 계파 갈등 확산, 석패율제 도입 논의 등이 경북 지역 야권인사들에게 일정 정도 기대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 지지층이 절대 다수를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지만, 공천과정에서 여권의 계파 갈등이 경북에서 재연될 가능성과 낙동강벨트를 중심으로 영남 전체에 야권 바람이 확산될 경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도 존재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연말 대선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19대 총선의 출마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이후 실시되는 총선과 지방선거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모든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세웠음에도 민주당 공천신청 결과 9개 지역구에 고작 11명의 후보자가 공천을 신청했을 정도로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의 인재풀은 여전히 빈약했다. 야권연대 협상과정에서도 경북은 이견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단일화 경선이 실시된 지역도 포항(북)이 유일하다. 예비후보자 간 공천경쟁이 사실상의 본선인 새누리당과 비교하면, 야권연대는 인물의 인지도와 흥행에서 지역의 관심사항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3.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가 정책이 되어버린 선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계파 간 공천 갈등으로 경북에서만 무소속 및 친박연대 후보자 6명이 당선되었다. 이번 총선에도 계파 간 갈등이 재연되는 듯 했으나, 포항(남, 울릉)의 이상득 의원을 비롯해 상당수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 또는 중도 사퇴했다. 이번 총선이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라는 점, 낙동강벨트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박근혜 위원장을 중심으로 백의중군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경북 지역 새누리당 후보들은 선거 홍보물, 현수막, 유세 메시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강조했다. 무소속 후보들도 박근혜 위원장과의 특별한 관계를 역설하거나 당선 후 새누리당에 입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령·성주·칠곡, 포항(남,울릉)의 무소속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와 접전을 벌였지만, 박근혜 위원장이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관세도 굳혔고 전국을 방문했다는 명분도 쌓았다. 대신에 야권 돌풍의 진앙지인 낙동강벨트를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산·경남을 지켰고, 대구·경북으로 북상해서 김부겸과 결합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가 정책이 되어버린 경북에서 민주통합당 등 야권후보들의 설 자리는 매우 좁았다. 따라서 탈핵, FTA로 말미암은 농민의 피해, 구제역 파동, 영남권 신공항 유치 논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논란 등 지역 관련 정책들이 이슈화되지 못했다. 박근혜 대세론을 중심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정치지형은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2010년 5대 지방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등 범야권의 경북 광역비례 정당지지도가 25.63%였지만, 19대 총선결과 19.64%에 머물렀다. 지역구 개표결과 정당지지도를 넘어서는 득표율을 보인 후보는 군위·의성·청송의 김현권 후보가 27.3%로 유일했다. 정당지지도 변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북 지역의 선거 결과는 패배라고 할 수 있으나, 박근혜 대세론의 핵심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4. 경북을 야권의 블루오션으로 만들 중장기계획부터 세워야 한다

전국에서 접전지역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절대 약세 지역인 경북에 관심과 지원을 쏟을만한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 '김대중과 민주당은 빨갱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경북 민심은 여전히 공고하고, 오히려 당의 지원이 득표에 방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지역구에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된다. 획기적인 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북의 정치지형은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 대구·경북의 정치지형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런 노력 없이 향후 선거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수 없고, 평가도 있을 수 없다. 이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각각 ‘동진정책’, ‘전국정당화정책’(이하 동진정책)을 추진한 바가 있다. 현시점에서 이들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지낸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2008년 오마이뉴스 기고문에서 동진정책은 성과도 있었지만 4가지 전략적 오류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첫째, 지역의 기득권 세력과 제휴를 통해 지지기반을 확대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밀라노프로젝트’, 참여정부가 추진한 ‘대연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둘째, 민원해결사적 방식의 한계이다. 지역사회의 공적 이해가 아닌 특수한 이해를 들어주는 대가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은 지지의 충성도도 약했고 한시적이었다. 셋째, 발전주의 아젠다를 맹목적으로 추구했다.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 중심의 발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지만, 그 혜택이 시민에게 가지 못하고 한나라당의 확실한 지지기반이던 토호세력들에게 돌아갔다. 넷째, 정당이라는 정치적 기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내부의 공감을 바탕으로 지역 내부에서 정당의 역량이 조직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청와대를 중심으로 밀어붙여 정체성과 조직적 문제의식이 불분명한 명망가를 땀질용으로 활용하는 결과만 가져왔다. 17대 국회에 출마했던 후보자들, 참여정부에서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정당 활동에 조직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심지어 이번 총선에서 포항(남, 울릉)에 출마한 무소속 박명재 후보는 참여정부 행정부 장관과 4대 민선 경북도지사 열린우리당 후보였던 인물로서, 당선하면 새누리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에서 지지기반을 확산하기 위한 제대로 된 동진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오류를 바탕으로 새로운 구상을 해야 한다. 김태일 교수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 기득권 세력과의 제휴로부터 지역 기득권 세력을 재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특수이해를 추구하는 민원해결사 방식에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 제시 방법으로 변화해야 한다. 셋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생활정치 의제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 명망가 활용 전략을 버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세대 리더 육성 전략을 추구하되 그 중심은 항상 당이어야 한다.

5. 허대만, 김현권에서 민주당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

김태일 교수가 동진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을 제시했던 시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이다. 그 사이 5대 지방선거와 19대 총선이 치러졌다. 김태일 교수가 제시하는 대안이 추상적이긴 하나 방향은 명확하다. 무엇보다 당을 중심으로 지역의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고, 지역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생활정치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은 결국 풀뿌리부터 기초체력을 다져야 한다는 맥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기준에서 최근에 치러진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있다. 우선 5대 지방선거에서 경북 광역 및 기초의회에 6명이 진출했다. 5명은 비례대표로 당선되었고, 유일한 지역구 당선자는 임미애 의성군 의원이다. 민주당 깃발을 들고 득표율 1위로, 그것도 재선에 성공했다. 중앙당이 발간한 5대 지방선거 백서에서 임미애 의원은 당선후기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진정성의 확보를 강조했다. 임 의원이 경북에서 의미 있는 뿌리를 내렸지만, 중앙당 차원의 동진정책이 사라진 상태에서 스스로 거둔 성과리는 점에서 처연하기까지 하다.

연장선상에서 19대 총선 출마자 중 포항(남, 울릉) 허대만 후보와 군위·의성·청송의 김현권 후보를 주목한다. 현 경북도당 위원장인 허대만 후보는 2대 포항시의회 의원, 18대 총선 포항(남, 울릉) 후보, 5대 지방선거 포항시장 후보 경력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면 적어도 지방선거에서는 승승장구했을 거라는 평을 받고 있지만, 줄곧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지역주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도당 차원에서 통합진보당과 공동선대위원회를 구

성하고, 포항(북)의 야권단일후보인 유성찬 통합진보당 후보와 공동 유세를 펼치는 등 활발한 야권연대를 주도했다. 쟁점화에는 실패했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 야권 후보자들과 공동으로 탈핵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동생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후보,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냈지만 새누리당에 입당하겠다는 무소속 후보 사이에서 외로운 싸움을 펼쳤지만 17.8% 득표로 4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경북 지역의 차세대 리더로서의 자질과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평가한다.

경북 야권 후보자 중 최다득표율을 기록한 김현권 후보는 앞서 언급한 임미애 의성군 의원의 남편이다. 17대 총선 이후 두 번째 도전이고, 새누리당 김재원 후보 와도 두 번째 대결이다. 19대 총선에 출마한 전체 후보자 중 유일한 농민 후보이기도 하다.

김현권, 임미애 부부는 정치권에서 보기 어려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서울대, 이화여대 재학 중 87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20년 전 귀농해 농부의 길을 걷고 있다. 참여정부 한국농어촌공사 이사를 역임할 당시에는 농업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는 농업전문가였다. 마늘소 브랜드로 알려진 의성군 한우협회 회장을 수년째 역임했고, 17대 총선 출마 당시에는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던 지역 농민회의 마음을 19대 총선에서 얻어냈다.

‘농민의 마음을 제대로 이는 농민 후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김현권 후보는 농기계가격 원가분석, 사료안정기금 조성 등 지역 밀착형 정책과제들을 제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결과 지역 사회에서 박근혜의 최측근임을 홍보한 김재원 후보를 상대로 27.3%를 득표했다. 여야를 통틀어 유일한 농민후보로서 지역민들과 소통한 점, 지역의 생활정치 의제를 추구한 점 등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비단 경북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까지 경북 지역주의의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을 검토하고, 19대 총선 등 최근

의 선거결과에서 작지만 소중한 성과들도 발견했다. 하지만 경북의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의 조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해서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세력을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전체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 시절 김태일 대구시당 위원장이 추진했던 ‘대구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대사모’)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당시 대사모를 통해 열린우리당 소속 24명의 국회의원이 대구에서 제2의 지역구를 가지고,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는 역할을 맡았다. ‘대사모’를 계승발전 시켜야 한다. 다만 지역 현안에 매몰될 경우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할 수 있다. 현역 지방의원, 이번 총선에서 발굴한 지역의 생활의제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 의제들을 원내입법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이 과정에서 의제를 발굴한 지역 정치세력을 중앙에서 홍보함으로써 지역민에게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던져야 한다.

미리 준비하고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바보 노무현, 바보 김부겸 등 명망가들의 도전, 희생, 감동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인재와 의제들을 육성하고 발굴하여 기초체력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주의의 균열은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지역민을 감동시키는 사람과 의제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역사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당장 2014년 지방선거부터 준비해야 한다. ∞

“지역 밀착형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경력이 화려해도 지역민과 일체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 한갓 장식용 수사에 불과했다.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와 생산자 조직 등에서 밑으로부터 고생하면서 커 올라오는 일꾼을 주목하고 키워야 한다. 그래야 우리와 이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 사람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사는 길은 변하는 길뿐이다.”

- 김현권의 기고문 중